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작성자 : 구미 해마루중학교 정원진 사서교사

학년 : 중학생

단계	차시	학습 단원 및 활동 내용
읽기 전	1	생각 열기
읽기 중	2~3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4~5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기둥이라고 수민은 말했다」 「프린트를 묶을 때는 더블클립이나 날클립이 좋아」
	6~7	「시와 수필과 나와 만년필 세 자루」
	8~9	「점착 메모지는 격자무늬 노란색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부러지는 게 낫다」
	10~11	「가을 정원의 다이어리」
	12~13	「중요한 노트는 반드시 복사를 해둘 것」
	14~15	「스테이플러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읽기 후	16~17	월드카페 독서토론 활동하기
	18~19	나의 문구, 나의 이야기

해당 독서 지도안은 중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안입니다. 총 19차시로, 수업을 읽기 전-중-후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다각도에서 온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 수준이 높은 3학년의 경우 독서 시간을 줄이는 등 차시 조절이 유동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 ‘생각 열기’ 활동을 통해 도서 정보, 수업 진행 방식, 독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생각 열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의 소재인 문구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는 비슷한 주제로 묶이는 챕터를 제외, 한 챕터씩 독서를 한 후에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한 챕터당 2차시가 소요됩니다. 첫 한 차시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시간, 다음 한 차시는 독서 지도안에 따라 소그룹 모둠별로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읽기 후] 단계에서는 ‘월드카페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시간을, ‘나의 문구, 나의 이야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상을 창의력을 더해 글로 풀어내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는 늘 학생들 곁에 존재하는 문구를 소재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숨어있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면서도 독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9편의 글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시 | 생각 열기

〈 도서 소개 〉

- 도서 기본 정보 안내하기
- 도서 제목, 목차, 표지를 통해 도서의 내용 유추해 보기
- 작가의 말 읽고 집필 의도 파악하기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진행 방식 안내 〉

- 한 챕터씩 읽고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 시에는 소그룹 모둠별로 진행함
- 한 챕터당 2차시가 소요됨 (한 차시는 독서 및 독후감 작성 시간, 다른 한 차시는 활동 시간)
: 학년, 학생 수준에 따라 차시 조절 가능

〈 독서 방법 안내 〉

① 아래의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등 표시를 하며 독서

- 인상 깊었던 부분
-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개인 부분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부분
- 혼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어려운 어휘 등)

② 독서 후에는 짧은 독후감 작성

짧은 독후감 필수 요소 : 인상 깊었던 부분, 전체적인 나의 감상

〈 도서의 소재와 관련된 생각 열기 질문 〉

- 내가 문구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발표해 보기
- 나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문구 또는 물건 소개하기

| 2-3차시 |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1. 내가 애용하는 볼펜을 떠올려보고, 그 볼펜을 애용하는 이유와 함께 소개해 봅시다.

.....

.....

.....

2. 태경과 이민영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태경의 볼펜이 부러진 사건	
태경의 입장	이민영의 입장

3. 위와 같이 오해를 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

.....

.....

4.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말해 봅시다.

내가 태경이라면...	내가 이민영이라면...

5.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

.....

| 4-5차시 |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기둥이라고 수민은 말했다
프린트를 묶을 때는 더블클립이나 낱클립이 좋아

1. 핸드메이드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말해 보고, 다른 제품들과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

.....

.....

2. 「프린트를 묶을 때는 더블클립이나 낱클립이 좋아」의 선우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기둥이라고 수민은 말했다」의 정현은 각각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선우	정현
재능			
변화	전		
	후		

3.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구분한 것일까요?

.....

.....

2) 모든 과목에는 그 나름대로의 배우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한 가지 선택하고 그 과목을 학습하는 이유를 말해 볼까요?

.....

.....

3) 교과 시간 이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

4. 성적표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 봅시다.

5. 내가 만약 문구를 만든다면, 어떤 문구를 만들지 아래에 그려 봅시다.

| 6-7차시 | 시와 수필과 나와 만년필 세 자루

1.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왜 그 꿈을 꾸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

.....

.....

.....

2.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 하는 것'을 적어 봅시다. 만약 두 개가 다르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3. 부모님이 나의 진로에 대해 반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

.....

.....

.....

4. '아빠의, 할아버지의 만년필'은 민진과 민진의 아빠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

5. 제목 ‘시와 수필과 나와 만년필 세 자루’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시 :

— 수필 :

— 나 :

— 만년필 세 자루

① (라미 알스타 라즈베리 한정판) :

② (하늘색과 연두색 중간쯤인 듯한 색깔의 육각형 만년필) :

③ 아빠의, 할아버지의 만년필 :

6. 도서관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 보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구분	내용
진로 및 직업	
하는 일	
선택한 이유	
필요 자질	
앞으로의 계획	

| 8-9차시 |

점착 메모지는 격자무늬 노란색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부러지는 게 낫다

1. 여러분은 일상에서 ‘성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

.....

2. 책 속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가족이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

— 아빠가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

3.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문기사] 같은 학위 따도 남성이 수천만원 더 번다... "성차별은 '팩트'"

성별 임금 격차는 특정 전공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0개 전공 학위 취득생의 소득을 분석해 보니, 16개 전공에서 남성 졸업생의 수입이 여성보다 높았다. 조지타운대 회계학과를 보자. 졸업 3년 뒤 남성의 연봉은 여성보다 55%(약 7,200만 원) 많았다. 미시간대 법대를 졸업한 남성(16만5,000달러)은 여성(12만 달러)보다 37%(약 6,000만 원) 더 많이 벌었다. —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2022.08.10.)

[도서] 불평등한 선진국 中 ‘여전한 여성차별’ p.390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답은 50.9%로 전체의 절반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는 예는 11.5%에 불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9.8개월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기간은 출산 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으로 총 15개월이지만 그 기간을 다 쓰지 못하고 출근하는 거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뒤 나타나는 차별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은 39.3%가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내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입니다.

4. 성 차별적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5. 다음은 채소명이 권성주의 변화를 이끌어낸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권성주의 사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써 봅시다.

채소명의 말	권성주의 사고 변화
“너 공부 잘한다던데? 너네 반 애들이. 90점 안 넘는 과목 없으면서? 그럼 잘하는 거잖아.”	
“소명이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진 않았거든. 아빠 따라 조기 축구 다니고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게 된 거야.“	

6. ‘진정한 나의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책 속 ‘권성주’의 이야기와 연관 지어 말해 봅시다.

| 10-11차시 | 가을 정원의 다이어리

1. 가을과 정원의 가족 관계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가을	정원

2. 나에게 소중한 존재를 떠올려 보고,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써 봅시다.

.....

.....

.....

.....

3. 다음 (가)~(다)를 읽고 활동해 봅시다.

(가) 병어리 장갑, 가사를 절다, 흑형, 잼민이, 헬린이, 툭딱, 맘충

(나) 사람들이 내게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해서 나는 거꾸로 배울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통 무슨 말을 하겠
다는 것과,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청각장애인끼리는 이런 농담을 해요. 우리는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다. 우주로 나갔을 때 우주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청각장애인밖에 없다고요. 지구별 땅 위에서는 우리가 살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리하지만, 우주에 가
면 우리가 제일 잘 소통할 수 있다고요.

1) ‘차별’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2) (가)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입니다. (나)의 본문 내용을 토대로 (가)가 왜 차별적 표현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화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3) (다)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을 써 봅시다.

4. 가을과 정원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나요?

5.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어 개선 목표를 세워 봅시다.

언어 개선 목표

- 1.
- 2.
- 3.

6. 가을 또는 정원 중 한 명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To.

From.

| 12-13차시 | 중요한 노트는 반드시 복사를 해둘 것

1. ‘선호’라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겉으로 보이는 강선호의 모습	정민이 발견한 강선호의 모습

2. 아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다룬 칼럼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일약 유명해진 샌델(M. Sandel)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이 나온 직후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능력주의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서요.

이 책의 제목은 샌델이 능력주의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정'(暴政, tyranny)이란 단어가 그의 부정적 시각의 정도를 잘 말해주고 있으니깐요. 이와 같은 그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나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교육기관과 직장이 인종, 성별, 출신지역, 출신가문 등을 고려해 사람을 뽑는다면 과연 이것을 공정한 선발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능력(merit)에 의해서만 사람을 뽑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나 음서제에 비하면 능력주의가 훨씬 더 공정한 선발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샌델은 능력주의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가면 이것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고, 능력주의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①샌델이 보기에 능력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승자들을 오만으로, 그리고 패자들을 굴욕으로 몰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능력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승자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 성공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입시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굴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바지만, 모든 것이 노력의 결과로 정직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운(luck)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 오마이뉴스,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준구 교수 (22.02.08.)

1) 위 글을 읽고, 능력주의 사회의 단점을 정리해 보고, 이로 인해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써 봅시다.

능력주의 사회의 단점	이로 인해 내가 힘들었던 경험

2) 세영고 학생들 사이에서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3. 그동안 자신이 먼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요? 있다면, 왜 다가가기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3.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 「중요한 노트는 반드시 복사를 해 둘 것」 p.165

“……이제 학교에서 나 모른 척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담아 놓지 말고 힘들 때마다 나한테 해 주면 안 돼?”

내가 널 안은 채로 물었어.

“나랑 친해지면 너까지 괜한 말 들어. 지금도 힘들잖아.”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면 또 어때. 나 학교에서 아무랑도 말 안 하는데, 더 나빠질 게 있긴 해?”

네 어깨가 조금 들쭉였어.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팔을 풀지 않았어. 네가 한숨을 내쉬었어. 너는 늘 나를 한심하
다는 듯 바라보며 한숨을 쉬지만, 그래도 나에게 너는 내 노트를 살려준 친구야. 제본 노트를 써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준
사람, 사물함 안에 구겨진 노트를 보고 나 대신 화내 준 유일한 사람이야. (중략)“

(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사 중 일부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변호사이고, 최수연은 그녀의 로스쿨 동기이다.

최수연 : 나도 별명 만들어줘.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 아님, 최고 미녀 최수연?

우영우 : (깊이 생각하더니)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최수연 : (서운해하며) 쳇, 그럼 난 뭔데?

우영우 :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나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
이야.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3.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 자신에게도 (가)의 선호, (나)의 최수연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떠올려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들과 같
이 행동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그간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건넬 따뜻한 말을 써 봅시다.

| 14-15차시 | 스테이플러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1. 살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말해 보고, 책에서 ‘주인’과 ‘스테이플러’가 각각 스스로를 누구와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써 봅시다.

나와 남을 비교했던 적은...

당사자	비교 대상	이유
주인		
스테이플러		

2. 어떤 존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

.....

.....

3. 시영이 발견한, 스테이플러의 감춰진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

.....

.....

4. 나의 잠재력과 내가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봅시다.

.....

.....

.....

5. 자신의 필통이나 책상에 놓여 있는 문구들을 아래 표에 정리해 봅시다.

문구 이름	만난 곳	만난 날	사용하는 빈도	사용하는 때
예시) 모나미 FX ZETA C3 삼색 볼펜	OO문고 □□점	2022년 8월 22일	★★★★☆	필기할 땐 언제나!
			☆☆☆☆☆	
			☆☆☆☆☆	
			☆☆☆☆☆	
			☆☆☆☆☆	
			☆☆☆☆☆	

6. 자신이 가장 잘 쓰는 문구와 쓴 지 가장 오래된 문구를 하나씩 선택하고, 그 문구의 입장이 되어 문구의 속마음을 상상하여 써 봅시다.

자신이 가장 잘 쓰는 문구 :

자신이 쓴 지 오래된 문구 :

| 16-17차시 | 월드카페 독서토론 활동하기

<월드카페 독서토론 방법>

- 진행 방식

1. 토론 주제를 챗터별로 9개로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카페(모둠)을 만든다.
2. 카페 호스트(모둠장)를 선정하고, 호스트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의 카페에서 대기한다.
3. 손님들은 자신이 토론하고 싶은 챗터의 카페에 방문하여 10분간 이야기를 나눈다.
4. 이야기를 나눌 때는 카페별로 준비된 2절지에 각자 크게 원을 그린 후,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해당 챗터를 읽고 떠올랐던 생각 및 감상을 쓰며 이야기한다.
5. 10분이 지나면 다른 카페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10분간 진행한다.
6. 총 6번의 토론이 끝나면, 호스트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발표한다.

토론 주제

-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기둥이라고 수민은 말했다」
- 「프린트를 묶을 때는 더블클립이나 날클립이 좋아」
- 「시와 수필과 나와 만년필 세 자루」
- 「점착 메모지는 격자무늬 노란색으로」
- 「가을 정원의 다이어리」
- 「중요한 노트는 반드시 복사를 해둘 것」
- 「스테이플러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 「흔들리는 것보다는 부러지는 게 낫다」

- 역할

1. 호스트 : 각 카페의 주인
 - 1) 손님이 모이면 10분 동안 손님들의 토론을 진행
 - 2) 다음 손님이 오면 이전 손님들의 토론 내용과 남기고 산 질문을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
 - 3)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여 교실에서 발표
2. 손님 : 자유로운 토론 참가자
 - 1) 마음에 드는 주제의 카페에 가서 토론에 참여
 - 2) 10분 후 토론이 끝나면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토론에 참여 (총 6번 토론)

| 18-19차시 | 나의 문구, 나의 이야기

1. 책에 나온 문구 중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 한 가지를 고르고, 문구를 선택한 이유를 써 보세요.

내가 선택한 문구 :

문구를 선택한 이유 :

2. 수업 첫 시간에 생각했던 ‘나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문구 또는 물건’을 떠올려 보고, 그 문구를 소재로 짧은 글을 써 봅시다.

1) 글쓰기 방법 알아보기

글쓰기 원칙

1. 구체적으로 써라 = 생동감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써라
2. 가능하면 짧게 써라 = 한 문장을 길게 늘어쓰지 말고 끊어서, 쪼개서 써라
3. 글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녹여라 = 내가 겪은 에피소드를 먼저 생각해 보라
4. 독자를 끌어당겨라 =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써라
5.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면? 마인드맵을 그려서 생각을 키워 보라

2) 글쓰기 계획하기

주제	
장르	
소재(문구)	
인물	
배경	
엮힌 이야기	

3) 실전! 글쓰기

제목 :

4) 친구들과 나누기

모둠원에게 나의 글을 보여 주고, 친구들에게 감상문을 받아 봅시다.

이름	
한줄평	
좋았던 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름	
한줄평	
좋았던 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름	
한줄평	
좋았던 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